

원 본	세이코 신문	발행일	2017-07-19			면(面)	5
제 목	입회8년 뇌성마비와 싸우다	내 용	신체적 장애와 고뇌를 이기고 승리, 나아가 타인을 격려하는 신심				
번역자	Y-TRANS	번역레벨	완직역	쫄직역	어중간	쫄의역	완의역
						O	

이번엔 자신이 고뇌하는 사람을 격려할 차례!

[야마구치현 호후시]

취직, 결혼, 육아... 뇌성마비장애가 있는 다카하시 타쿠야 씨(27) (다이도지부 남지구리더)는 모든걸 ‘꿈 같은 소리’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창가학회에 입회한지 8년. 하나하나 현실로 되었다. ‘동지들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현재 다카하시 타쿠야 씨는 아성회로서 사제의 길을 걷고 있다.

평범한 행복

분만실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태어날 때 반시체상태였던 다카하시씨. 호흡이 안되고 산소와 혈액이 온 몸에 흐르지 않는 ‘저산소허혈성뇌증상’을 일으킨 것이다.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서 긴급조치를 했다. 목숨은 건졌으나 ‘뇌성마비’진단을 받았다. “평생 걷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의사는 어머니인 치에코씨(48)(부인부)에게 말했다.

3살 때, 겨우 서게 되었지만, 재활치료를 계속해도 오른손발은 근육강직이 심해지는 상태였다. 택시로 초등학교를 다니기는 했지만 학교의 계단에서 몇 번이나 부딪혀 무릎은 피로 물들었다.

‘나는 장애자다’라는 생각속에 즐겁게 뛰어 노는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비틀어진 다리가 더 비참해 보였다. 너무나 교정을 마음껏 달리고 싶었다.

유창하게 발음이 되지 않는 언어장애도 있었다. 그래서 일본어 발음은 공포 그 자체였다. 차가운 시선에도 ‘울면 지는거다’라는 생각으로 입술을 악물었다.

3번 전학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 중학교 1학년 3학기부터는 장애특별지원학교로 옮겼다.

그곳에서는 팔다리가 불편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그들의 노력에 충격을 받았다.

“나도 움직일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며 삶에 있어서, 한번 해보자라고, 본래 가지고 있던 ‘지기 싫어하는’ 근성에 불이 붙었다.

이런 노력끝에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못해도 좋으니 최고를 목표로하자”라고 결의하고 육상부에 들어갔다.

연습이 끝난 저녁에는 시간을 아껴 공부에 주력했다.

졸업후에는 키키대학 통신교육부 법학부에 입학, 매일 집에서 리포트를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차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가고 있다.

‘뇌성마비인생에 평범한 행복이 찾아올까? 주위의 지원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비틀어진 손발 ...’ 마음속에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중한 ‘그 무엇’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18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다. 도쿄에 사는 할아버지 카와무라 요시오(河村良雄)씨(고인)가 방문했을 때였다.

“어떤 괴로움도 신심으로 극복할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신 할아버지의 확신에 찬 말씀에 2009년 1월, 어머니와 함께 입회했다.

하지만 기원해도 비틀어진 손발은 낫지 않았다. ‘신앙한다고 뭐가 바뀌는가’라고 생각했고 근행 창제도 하지 않게 되었다.

노력만하면 종교따윈 필요없다고 생각해 구직활동에 도전했다. 손발이 부자유스럽고 대화도 어려운 다카하시씨에게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20곳 이상 퇴짜를 맞았다. 장애가 없으면 생기지 않았을 고뇌... 그 후, 다행히 취직할 곳은 정해졌으나, 깊은 숙명을 느끼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 때, 낙담하는 마음을 태양처럼 비춰주는 여성이 있었다.

직업능력개발학교에 다닐 무렵, 우인의 소개로 알게된 노리코씨(31세,부반담). 그녀도 발달장애가 있었다.

‘어떤 숙명이라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 강한 심지(心志)에 사랑의 마음이 싹텄다. 고백을 했을 때 부끄러운 듯 받아주었다.

3개월 후, 노리코씨는 선언하듯 이야기했다.

“저기, 사실은 나 학회원이예요”

그리고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노리코씨의 2명의 남동생도 지적장애와 뇌성바미환자다. 하지만 노리코씨의 아버지 하야시 후미토시(林文俊)씨(69세,지구간부), 어머니 마사에(正枝)씨(59세,지구부인부장)은 “복운있는 아이로 키우자”라고 자애의 기원을 계속했다. 부모가 바쁠때는 학회원이 부모님을 대신했다.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가방을 숨겼을 때, 울면서 흐느끼는 노리코씨를 오다 키쿠에씨(小田喜久枝)(74, 지구부부인부장)가 안아주었다.

다카하시씨는 그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인생에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었다. 창가가족의 따뜻함, 동지의 격려... 그런 그녀와 함께 살자. 단순히 위로받는게 아니라 함께 싸우는 사이가 되자고.

“나도 진짜 신심을 해보겠어”라고 강한 결의를 다졌다.

학회활동에 철저히 하면서 장애복지시설에서 열심히 일했다. 직장까지 약 3킬로미터. 다리를 끌며 편도 1시간을 걸러 출근한다. 마주치는 사람의 시선이 따라우나 “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다”라고 . 몇 번이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 기쁨

사제공전으로

3년전, 9월 3일

“우리가 도와줄 테니 걱정말아요”라며 장년부, 부인부 선배들이 준비해 준 회관의 부실에서 조출하게 예식을 올렸다. 어색한 턱시도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랑신부는 지켜보는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을 선언합니다”

울지 않겠노라 정하고, 몇 번이나 연습한 원고가 끝내 흐릿하게 보였다.

다음해, 장녀 미키(2)가 탄생, 동지들의 응원속에 진지하게 임해 온 신심은 꿈을 현실로 바꿔 주었다.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아성회에 지원했다. 남자부 선배는 “당신은 이케다 선생님의 제자다. 장애라고 봐주지 않는다”라고 엄애의 지도를 했다. 그 기대가 더없이 기뻐다.

‘나도 광포에 이바지하고 싶다’라고 다짐해 생명에 새긴 ‘불퇴’의 두 글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장애인용으로 개조한 차량으로 불법대화에 우인을 만나러 순회방문했다.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미야기

“종교에 빠지지마”, “신심 이야기는 그만”이라는 말을 들으며 대화를 거부당하는 사이에 더욱 창제를 하고, 이케다 선생님의 지도를 연찬했다. 매일매일이 ‘사제공전’의 나날이었다.

‘장애는 낫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드시 행복해 질 수 있다. 마음(생명)이 바뀐다’

같은 장애가 있는 우인에게 신심의 환희를 말한다. 한 우인은 다카하시씨의 확신에 감동하여 지난해 12월 입회했다.



올해 2월의 아성회대학교 입학식에서 다카하시씨는 체험담을 발표하기 위해 마이크앞에 섰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법화경의 행자의 기원이 성취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여서 1352쪽)라는 대성인의 말씀을 몸에 익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시울을 적시며 훌쩍거리는 동지, 깊은 공감에 고개를 끄덕이는 선배. 빛나는 눈동자의 동지, 동지, 동지... 모두 이 날을 기다려 주었다.

“이제는 제가 고뇌하는 사람을 격려하겠습니다”

와~ 하는 대환성이 장내에 울려퍼졌다. 종료후에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울었다.

변형된 팔다리 관절. 이미 싫어질대로 싫어진 장애. 그러나 지금 스승의 말씀을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다.

